

‘코로나19’로 고단했던 한 해를 다시 한 번 보내고 새롭게 2022년을 맞았다. 해맞이 마저 금지된 지 2년째, 언제까지 멈춰 있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 속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나은 세상, 일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한 걸음씩 함께 가야 한다. 마스크 속에서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관심’과 ‘나눔, 배려’가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보다 쉽게,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이웃, 길이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김민석 기자 mskim@

2022년 코로나19 이겨낼 힘, 여러분의 ‘OO’입니다

미소 의료인 2년째 방호복 생활 기약없는 싸움이지만 결국 이겨낼 것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완벽한 환자분들의 미소가 저희 의료진들에게 힘이 됩니다.”
주선옥(54·조선대병원) 간호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증 병상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코로나와 싸우며 보낸 지 꼬박 2년이 됐다.
주씨는 후배 간호사 40여 명과 함께 ‘환자 회복’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생각해 2년째 답답한 방호복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과의 싸움이다보니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주씨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하니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었다”면서 “결국 의료진들의 선택은 옳았고 급박했던 위중증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말했다.
주씨는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들의 경우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주어져야

않다. 유력별 사이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는 것 뿐”이라며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완치돼 건강하게 퇴원하는 환자들이 더 많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전남 지역민 1만 4000여명 중 1만 2300여명이 코로나를 이겨냈다.

“의료진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과의 싸움이 두렵죠,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웃으며 이겨내야죠. 주씨의 마스크 너머로 엿은 미소가 전해졌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위·중증증 병상은 모두 78개. 중증병상에 투입된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군·구 보건소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다투며 임인년 새해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관심 생활지원사 모든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 작은 관심이 큰 힘...소통 역할 지속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미(56)씨는 하루 3-4명의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다. 그의 활동 공간은 광주시 동구 동명동과 지산동 일대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등을 돕고 있다.
이씨가 찾아가는 노인들만 17명. 하루 3-4명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부 살피기를 시작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집안 일을 돕는다. 은행업무부터 보험상담, 홀로 지내는 어르신 말벗도 그의 역할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바깥 나들이를 할 수 없는 생활이 2년째 이어지면서 홀로사는 노인들에게는 이씨 같은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0일에는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평소 전화도 잘 받고 흑시나 못 받아도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어르신이 20통 넘는 전화를 받지 않아 퇴근 길에 가보니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던 것.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해 생명을 구했다.

이씨는 “코로나 시대,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이씨와 같은 생활지원사는 총 840여명, 이들이 돌보는 어르신들만 1만 2000명에 이른다.

희망 안산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세계 신기록 목표 향해 최선을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세계 신기록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안산(22) 선수는 지난해 은 국민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왔다. 안 선수는 지난 7월 30일 일본 도쿄의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부 개인전 우승을 비롯, 혼성전, 여자 단체전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안았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 사상 첫 하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 선수의 소식에 은 국민은 코로나19를 잠시 잊었다.

특히 광주여대 출신인 우리 지역 선수가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에 오르면서 기쁨은 더욱 컸다.

안 선수의 역할 때문인지 광주는 오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2 현대양궁월드컵도 광주에서 열린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2025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90여 개국, 1100여 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대회 기간 광주를 방문할 내외국인 선수단의 열 배가 넘는 1만 3500명에 이른다.

“국민들 염원이 저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셨는데, 간절히 희망하면 이뤄질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선수의 희망 메시지다.

나눔 헌혈 “헌혈은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길...적극 참여해 주세요”



“17살에 시작했으니 벌써 481차례나 했네요, 올해 2022년도에 헌혈 나눔, 주욱 이어갈 겁니다.”
김동운(64·목포시청 회계과·오른쪽)씨는 열렬한 헌혈 홍보대사다. 김씨의 2022년 새해 계획은 헌혈 500회 달성이다. 김씨의 헌혈 나눔은 17살부터 시작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만성신부전증을 앓아 신장투석을 하

다보면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때 수술로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다.
김씨는 “당시 목포에는 헌혈의 집이 없었다. 1990년대 중반, 목포시에 유달헌혈의집이 생길 때까지는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가 헌혈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봉사단을 만들었다. 헌혈 50회 이상 시민들과 함께 만든 봉사단이 ‘유달헌혈봉사회’로, 직접 헌혈하는 것 외에도 캠페인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코로나19 여파로 거리 캠페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헌혈자는 계속 줄어들게 되자, 봉사회원들은 직접 회비를 걸어 헌혈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김씨는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구매해 헌혈의 집에 기부하고 있다”면서 “선물을 보내는 날, 헌혈자가 더 많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며 웃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헌혈 봉사회는 김씨의 유달헌혈봉사회를 비롯해 모두 5개로, 505명의 회원들이 세상에 나눔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데 열심이다.
김씨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도전 드론축구단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매력적...나이는 문제되지 않아”



“나이가 무슨 상관이지? 도전한다는 거, 그것 자체만으로 즐거워지지 않아요.”
하호출(68·오른쪽 두번째)씨는 평균 연령 65세인 국내 최고령 드론 축구팀 유럽어스의 선수다. 젊은 사람들도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는 드론으로 축구경기에 참여한다. 하씨 등 8명이 드론축구팀을 만들게 된 건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자 현재 감독 박인철(58)씨를 따라 갔다가 드론 축구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시속 60km로 나는 드론 비행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치 F1 레이싱 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 그걸로 동네 주민들을 모아 팀을 만들었지.”

환갑을 넘은 어르신들이 드론을 조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동안 부서진 드론도 꽤 된다.

하씨는 “박 감독이 대번 찾아주셨고, 유튜브로 독학도 하고 손자들에게도 많이 물어보면서 열심히 배웠다”고 말했다.

하씨는 연습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농기계 창고를 연습실로 탈바꿈 시켰다. 비록 정식 드론축구 경기장의 절반 크기지만, 이 곳에서 매일 농사를 마친 후 팀원들과 모여 연습을 한다.

하씨 팀은 창단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4번 대회 출전 경력을 갖았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제1회 전남 도립대 총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는 꿈에 그리던 첫 승도 거뒀다.

하씨는 “상대들이 나이는 어르신들 생각해서 살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기쁘지 몰라. 그날 가장 많은 박수 받으면 팀이 우리 팀”이라고 했다.

40년 동안 농사만 짓던 노인이 드론축구를 한다는 건 주변의 시선도 재미있다.

하씨는 “나이 먹어서 하는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 매력적이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유럽어스는 최근 40~50대로 구성된 유럽어스 2기 모집에 들어갔다. 80대 드론축구 후배들이 생기게 됐다고 팀원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최고령 드론 축구팀은 2022년도에 도전을 이어간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원]	비고
2021타경 2858	1	고흥군 대서면 금라리 741 362㎡	답	7,6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동소 898-4 926㎡	답	7,60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타경 51287	1	여수시 덕충동 1985 393㎡	전	106,503,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타경 52754	1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173-1 5821㎡ [공유 지서문제6/78지분, 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 제한)]	전	12,089,52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여수시 화정면 체도리 317-1 719㎡	전	37,388,000	소매
2021타경 52877	1	여수시 화정면 체도리 317-1 719㎡	전	37,3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타경 53115	1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495 1276㎡	답	37,0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여수시 만흥동 산 182 13032㎡ [연고이상분묘, 지문정고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	답	37,0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21타경 2377	1	고흥군 동강면 오월리 산 154 16793㎡ [공유 지상형식1/3지분, 연고이상분묘수기소재로 분묘기권성립여지없음]	임야	15,113,79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2		동소 산 154-1 6612㎡ [공유 지상형식1/3지분, 지문정고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	임야	5,950,800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2021타경 2612	1	여수시 만흥동 산 182 13032㎡ [연고이상분묘, 지문정고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	임야	127,713,600	임대포항
2021타경 2735	1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194 1841㎡ [연고이상분묘, 지문정고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	전	34,242,600	농지취득자격증명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1194 1841㎡ [연고이상분묘, 지문정고및비닐하우스매각제외]	전	34,242,600	농지취득자격증명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하는 최고매수인인 매각물건거래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수신청 비용에 산입한다.
② 공유지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과 매수보증금의 이반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지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각기일 : 2022. 1. 17. (월) 10:00
④ 매각물건 : 2022. 1. 24. (월) 18:00
⑤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법 제108호경매당
⑥ 매각방법
① 임할병행 비회원 기입일지외 사안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입찰하여 보증금을 한해 입찰병행에 넣어 입찰병행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 및 보증금은 최저매각가의 10%(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의 자기입찰수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방공공투자계약서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하여 합니다.

2022.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송기철